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라

■ 본문

막 2:1-5

■ 시작 찬송가

85, 88, 91장
(통 85, 88, 91장)

■ 헌금 찬송가

287, 288, 325장
(통 205, 204, 359장)

▶ 집

1.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 1) 경배하는 곳
(삼하 12:20, 렘 26:2)
- 2) 찬송하는 곳
(대하 5:13)
- 3) 사모하는 곳
(대하 29:3, 시 26:8)
- 4) 거룩한 곳
(대하 36:14, 전 5:1)
- 5) 기도하는 곳
(사 56:7)
- 6)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
(막 2:5)
- 7) 말씀이 선포되는 곳
(마 13:54, 요 8:2)

뛰어넘는 믿음

사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믿음이 갖고 있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뜨겁거나 열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고, 사회의 관념이나 관습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풍병자의 이야기도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병 고침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뛰어넘는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합니다.

막 2:4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성경에서 등장하는 집

집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경에서도 집은 중요한 장소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서 '집'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지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베들레헴(!j,l, tyIB)'은 '빵집'이라는 뜻이고, 베엘(lae tyBE)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쓰(Beth)'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시 65:4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집은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할 곳이 '아버지 집'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은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집에서 치유함을 받았고, 회당장 아이로의 딸이 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집은 치유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집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던 곳도 집이며,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장소도 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눅 19:5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의 집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집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2장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로마가 만든 도시로, 산업도 발달하였고, 장사도 이루어졌으며, 로마의 세금 징수를 위해 로마 군대도 주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후 가신 곳이 '예수님의 생가'라는 사실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집을 '홈(home)'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막 2: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Mark 2:1

(NIV 성경)

A few days later, when Jesus again entered Capernaum, the people heard that he had come home.

예수님의 집은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집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예수님의 집에 가면 변화가 있고, 나음이 있고, 은혜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지붕에 구멍을 낸 이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막 2: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성도는 교회에 은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집입니다. 한 개인의 소유물들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취향이나 성품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교회는 그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엠편 3:20-21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서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은혜는 때로 나를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사람들로 인해 찾아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자신도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관계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눅 7:9-10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1세기, 이스라엘의 집들은 대부분 지붕과 그곳에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 선선한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 이야기를 나눴고, 물건도 보관했습니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택한 방법은 지붕입니다. 문제의 해결책이 없고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집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많고, 열리는 지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집은 우리 모두를 초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집에 들어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집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1년에 한번 있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 한명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것은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잔치를 여실 때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막 15:37-38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본문 2절에 기록된 대로 이미 예수님의 집에는 문 앞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상황에 예수님께서서는 막지 않으시고 그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그 모두가 초청을 받는 곳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오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품을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마 11:28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과 구경꾼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혜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고,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복음서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은혜의 문을 두드리는 성도되기를 바랍니다.

마 15: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율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지붕 있는 교회

순수한 아이들이 보통 집을 그릴 때, 해와 산과 나무와 구름을 그리고, 지붕 있는 집을 그리는 것처럼, 믿음 있는 성도들은 지붕 있는 교회를 꿈꾸고,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지붕이 열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교회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예수님의 집이 참 좋습니다!

공동
기도
제목

1.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대통령, 안보, 외교, 통일 등)
2. 교회를 위해서(교회와 속한 기관 및 봉사자, 교역자, 선교사 등)
3. 해외선교지를 위해서(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등)
4. 국내선교와 기관선교를 위해서(안동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등)
5. 교회 안의 이웃을 위해서(군장병, 해외유학생, 환자 등)
6. 세상의 이웃을 위해서(새터민, 이주노동자, 노숙자, 소년소녀가장 등)

2. 집의 상징적 표현

1)죽속

(사 7:13, 렘 31:31)

2)육체

(고후 5:1)

3)교회

(히 10:21, 딤후 3:15)

4)영적 성전

(벧전 2:5)